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부활을 살라!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전 15:58)

부활주일 예배

일시: 4월 9일(오늘) 1~3부 예배

말씀: 부활로 예수 제자를 삼으라 (마 28:8~20)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부활주일 특별찬양

일시: 4월 9일(오늘) 찬양예배 시

담당: 연합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4.13(목)~19(수)

언약을 붙들고
세계로 향하여

13일(목)	사역자 환영 감사예배
14일(금)	선교특강 / 금요집회 사역자 소개
15일(토)	- 각 국가별 선교 간담회 및 기도회 - 한국 기독교 선교사 기념관 및 양화진선교사 묘원 탐방
16일 (선교주일)	- 각 국가별 선교부스 운영 - 현지 사역자 교구 부서 방문 - 외선부 의료선교 진행 - 현지사역자 지원 지명헌금 - 선교주일 특별찬양예배
17일(월)	선교사설립 기독교 학교 방문
18일(화)	성경전래지 기념관 및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탐방
19일(수)	선교사 환송 예배

* 자세한 내용은 주간충현 6면 참조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 유진 피터슨은 “일상, 부활을 살라” 라는 그의 책에서 부활을 살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위로부터 태어나는 정체성을 얻고, 주님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의 삶을 빚어가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것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실재와 친밀해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창조계의 모든 것을 돌보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그리고 예수를 통해 계시된 부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부활 이야기들이 그렇게 파생되고 급격하게 증식됩니다. 부활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에 이름과 숫자로 표시된 큰길과 곁길에서 예수의 길을 복제해 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일시: 2023년 4월 22일(토) 10:00~13:00

2023년 제1차 학습, 세례식(성인) 안내

학습, 세례식: 4월 30일(주일), 찬양예배 시
교육일정: 4월 9일(주일) ~ 23일(주일)
대상: 학습(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세례(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신청: 선교관 1층 사무국, 온라인 접수(QR코드)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4월 9일(주일) 까지
문의: 박동진 목사(010-4482-0043)



날짜	시간	학습교육/담당자	장소	세례,입교 교육/담당자	장소
4월 9일(주일)	12:10~12:50	성경, 하나님, 인간 (위안복 목사)	제1교육관 602호(6층)	성경, 하나님, 사탄 (전영재 목사)	제1교육관 501호(5층)
4월 16일(주일)		죄, 예수님, 예배 (위안복 목사)		구원, 성령, 교회 (전영재 목사)	
4월 23일(주일)		성도의 생활, 신조 (위안복 목사)		종말, 재림, 성례 (전영재 목사)	
	추후공지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4월 30일(주일)	주일찬양예배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예배 2:50분 전까지 입실 바람			

지난 주일(4월 2일) 설교 되새기기

한나가 품었던 하나님의 심정

(사무엘상 1:9-18)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며,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통해 성도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난주간을 지킬 것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 단계 중 초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안정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관심의 단계를 넘어 보다 집중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숙하여 깊어지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입하여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건을 기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시각과 청각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온 마음도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눅9:51).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눅9:9)” 종려주일의 하이라이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셔야 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따라 언약을 이루고 있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통하여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욱 깊고 광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나

본문은 아들이 없어 고통하던 성경의 여러 여인들(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오미와 룻, 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비슷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자 ‘브닌나’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브닌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조차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원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인생의 고통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5절)” ‘마음이 슬픈 여자’란, 슬픔이 가득한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직역하면 ‘마음의 결단이 있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서, 슬픔과 어려움을 묵상하며 자신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한나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심정을 통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62:8)”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마음을 토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음에 고통하는 한나에게 “아들을 줄테니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나도 내 일을 해 줄 아들이 없음에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나는 정말 왜 아들을 구해야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소통된 이후 한나가 드린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지금껏 개인적으로 한정시키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고 있으신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한나가 품었던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삼상1:27-28)”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아들이 필요했지만, 사사기에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고통을 풀어드린 사건 속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픔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잘못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삶

종교개혁 초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지냈던 성도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 평소 좋아하던 고기를 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즐기던 삶에서 즐기 않는 삶으로 바꾸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삶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를 표시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인내하는 마음도 유익하지만, 절제를 통해 얻게 된 바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며 금한 그 자리가 은혜로운 나눔으로 채워지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미안함입니다. 이는 돌이키고 중단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생겨나는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단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말아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뛰어넘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말미암은 유익까지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만개한 벚꽃을 애써 보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갈 때 보이는 벚꽃에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보다 주님 앞에 합당한 바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롬 11:33-34)”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설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깊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설렘이 생깁니다. 힘들 때에도 투병 중에서도 기력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져 하나님 아버지와 심정이 통하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 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Hannah's Heart for God

(1Samuel 1:9-18)

Rev. Kyu Sam Han

Palm Sunday is a week marking the beginning of Passion week and preparing for Easter Sunday. Through Palm Sunday, believers pledge themselves to observe Passion Week according to the amount of their faith. I hope those who are in the primitive stage of their faith among three stages of faith should be interested in Jesus and the cross in this Passion week, those who are in steady stage of faith should focus more over the interest phase, and lastly, I wish those who are in the stage of deep and matured faith could have experiences of devoting their minds immersed in loving the Lord to the cross. Palm Sunday commemorates Jesus' last entry into Jerusalem. At that time, the people of Israel welcomed Jesus with all their hearts, sight, and hearing. Jesus also concentrated his heart on Jerusalem(Lk 9:51). "Rejoice greatly, Daughter Zion! Shout, Daughter Jerusalem! See, your king comes to you, righteous and victorious, lowly and riding on a donkey,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Zec 9:9). The highlight of Palm Sunday was the image of Jesus entering into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Since Jesus came as the King, he properly had to enter riding on a white horse as if he were a general of victory, but Jesus, King of Humility, entered into Jerusalem riding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It was to accomplish the prophecy of Zechariah in the Old Testament. It was the scene which shows the accomplishment of the covenant according to God's plan of salvation. When we examine today's text through Jesus, the meaning is revealed more deeply and widely.

Hannah's empathy for God's heart

The text resembles in a way the stories of several women who suffered from having no son in the Bible(Abraham's wife Sarah, Naomi, Ruth, and Elizabeth, mother of John the Baptist). However, due to her competitor Peninnah, Hannah's heart ached more. The consolation of her husband Elkanah who loved her more than Peninnah did not become a comfort to Hannah. Hannah went to God in her bitterness and sadness. Like Hannah, we should also go in front of God in the agonies of our life. "Not so, my lord," Hannah replied,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I have not been drinking wine or beer;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v15). 'a woman of a sorrowful spirit' has a meaning of 'a woman full of sadness', but, according to literal translation, it has a meaning of 'a woman of resolution'. Meditating on her sadness and difficulties in her hardships, Hannah did not make mistakes of dismantling herself. Rather, she determine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sadness. The Bible records that when they brought their problems before God, and 'poured out their hearts' like Hannah, the problems were solved. "Trust in him at all times, you people; pour out your hearts to him, for God is our refuge."(Ps 62:8). Referring to the image that when surrendering what we have within us to God, amazing pouring of God is present to us, the writer of Psalm expresses "pour out your hearts". It seems that God might have talked to Hannah who suffered from having no son, "I am also painful because I have no son' to do my work', rather than saying to Hannah, 'I will give you a son, then you must offer the son to me'. Hannah, who had come to know God's heart, came to realize why she had really to ask for a son. It was because Hannah had empathy for God's heart. The heart of Hannah, who simply prayed to escape her personal agony, was bound to be different from Hannah's heart which was given to God after she communicated with God's heart. I hope you and I do not also limit our problems and agonies to extremely personal ones. I wish you and I would go forward to God in order to accomplish the will of God by realizing what God is feeling in our problems and what God's heart aches for in our anguishes.

"I prayed for this child, and the Lord has granted me what I asked of him.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For his whole life he will be given over to the Lord." And he worshiped the Lord there."(1Sal:27-28). God wanted His people

to be saved. For this, God wanted a son who had to be used according to His will, but there was no leader of Israel, who realized the Heart of God, from the period of Judges to that of Samuel. In the incident in which Hannah through God's heart released God's agony by giving Samuel to God. God's determination of sending Jesus to this earth is connoted. It's because to have God's heart is to take part in the salvation of God. We, the children of God, have God's heart by holding the heart of Jesus Christ. It's because the one who knows God's heart best is Jesus, and also the one who knows God's plan for salvation best is Jesus Christ. It is also the reason that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heart of Christ Jesus during Passion Week. It's because when we have Jesus' heart, we come to realize God's regretfulness and agonies, and that we also come to know our wrongs better. I hope you realize more deeply the reason that Jesus came to this earth is because of our sins.

The life lived through God's heart

In the period of early Reformation, believers who observed Passion Week through the heart of Christ lived a life of abstinence. Particularly, it is said that Protestants in Switzerland abstained from their usually favorite meat during Passion Week or Lent. We need to remember they shifted the life they enjoyed onto the life they did not enjoy. I hope you determine to lead a life of moderation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during Passion Week. In order to remember the determination, to mark something is a good way. The heart enduring in front of resentments and complaints unexpectedly arising is useful, but I hope you share what you acquired from restraint. And besides, it had better fill the place which was prohibited through restraint with gracious sharing. Our first reaction to the torment Jesus suffered for us is sorriiness. This is revealed by turning and suspending. We have to go one step further here. Remembering what Jesus has done for us, we should be joyful and gain new strength. I hope you experience the sharp spiritual discernment that arises when you have the heart of Christ. It's because beyond the worry simply about what to do, or to do it or not, we can discern the reason for doing it and even the benefit caused by it. During Passion Week we come to know we need not try to see the cherry blossoms in full bloom, and besides, that we need not turn our heads toward the cherry blossoms we can see when we pass by. I wish we would become believers who give thanks to God in the place Jesus has permitted us, and go forward thinking what is acceptable to the Lord. Lastly, there is what I realized through deeply reflecting on the heart of Christ last week. "Oh, the dep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How unsearchable his judgments, and his paths beyond tracing out! "Who has known the mind of the Lord? Or who has been his counselor?"(Rom:33-34). When we have the heart of Christ, excitement arises in our hearts. By virtue of the heart of Christ which makes us realize the depth of God, the excitement about what God will do occurs. We come to expect what God will do for His loving people through the heart of Christ even when we are having a hard time, even when we are struggling with illness, and even when we are running out of energy.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eart of Jesus Christ and celebrate Passion Week, Good Friday and Easter Sunday with the heart of God the Father.

영역·이울의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다시 30세 이후에 혼자서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충현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브릿지라는 청년 공동체에 새가족으로 참석한지 2주 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청년부는 처음이라 궁금하던 차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 기도원에 도착해서 벚꽃이 피는 날씨가 너무 좋은 장소에서 봄 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같은 옷을 맞춰 입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보다 7배는 더 간절히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는데 예전에 했던 방언이 튀어나오기도 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기도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형식적인 믿음 생활과 형식적인 믿음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의 기준대로의 판단이었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만 해봤던 저에게 브릿지 청년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그 새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함께 밥 먹고 잠 자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보내면서 저같이 자리 잡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의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회개하고 구원 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수련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고 브릿지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다리'라고 하는 것을 봄수련회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정민 형제



브릿지 공동체가 맞이하는 첫 봄 수련회...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주제 성구로 시작된 봄 수련회. 비록 금요 헌신집회 후 바로 기도원으로 넘어가는 강행군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회 가운데에서도... 그날 느낀 '힘'은 바로 주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대로 언제나 저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에게 돌아 가야하는 말씀을 깨닫는 뜻깊은 수련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교사회분들 그리고 면려회, 각 순장님과 브릿지 지체들 그리고 찬양팀장님과 찬양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민재 형제

첫 봄 수련회이면서, 우리 공동체를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헌신 집회까지 함께하는 큰 일정이라 면려회원으로서 내 머릿속엔 실수 없이 잘 진행해야지라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두려움으로 인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은 뜨거워졌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특강 내용은, 그동안의 내 어렴풋한 생각들을 깔끔하게 정리시켜 주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새 공동체를 섬기고 꾸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어느 해보다 일찍 피어나 아름다운 기도원의 벚꽃을 바라보며, 탕자와 같은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았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다형 형제

브릿지 봄 수련회 “복음으로 돌아가라”

성도님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브릿지 주관으로 금요헌신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브릿지 첫 봄 수련회가 지난 주말인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벚꽃이 활짝 핀 충현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마음껏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자연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브릿지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되어서 전진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22 리딩지저스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신 권성수 목사님의 글을 연재합니다.

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⑤

5.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은 기도할 뿐 아니라 묵상해야 한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타 종교의 초월명상과 차원이 다르다. 초월명상은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다음에는 그 자체의 의미까지 지워버리는 것이다. 초월명상은 결국 어떤 단어나 개념까지 다 지워버리고 ‘나와 신은 하나다’는 인식만 남긴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지만, 초월명상은 결국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인간 우상화 경험이다. 성경 묵상은 초월명상과 달리 피조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경험이다.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성숙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존적으로 살아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가는 과정이다. 성경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접촉되는 체험이다.

존 스토틀트는 “나는 계란들을 품고 조용하게 오래 앉아 있다”는 로버트 스티븐슨의 말을 인용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본문을 매일 숙고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짜 듣기 위해서 그 속으로 깊이 침잠하도록 노력”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이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까기 위해 알들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침잠하는 것과 같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계적인, 세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 목회자, 부흥사가 된 비결의 하나가 묵상에 있었다. 밤낮으로 묵상하는(시1:2) 훈련을 하면 말씀 구절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말씀을 묵상할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말씀은 무디가 말한 대로 ‘테스트해서 사실로 증명된’ 평생의 복음으로 남아 삶을 움직인다.

에드워즈는 회심한 후에 “내 마인드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크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거의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에드워즈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지 예일 대학교에서 강사로 가르친 것까지 영적인 퇴폐라고 했고 “내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학교 강의를 왜 영적인 퇴폐와 영혼의 상처라고까지 표현했을까? 학문적인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경을 생명의 책, 생활의 책으로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지성적으로만 연구할 때 분명히 정통신학을 하면서도 ‘죽은 정통’에 빠지기 쉽다. ‘죽은 정통’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대로 교리를 올바르게 지키지만 자기만족과 자기보호 메커니즘에 빠져 있고 영적인 열정을 혐오하는 특징이 있다. 조지 힛필드와 존 웨슬리는 18세기 부흥의 주역이었지만, 당시 정통주의자들에게 교리 자체가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열정적인 방법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았다. ‘죽은 정통’은 교리는 바르지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마음은 싸늘한 정통이다. 정통 교리와 정통 행동과 함께 첫사랑의 마음이 살아 있는 것이 올바른 정통이다.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절절하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율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나 잘못된 프로그램화된 깨진 컴퓨터로 일하는 엔지니어와 같다. 마음의 조율이 은혜 흐름의 진수다. 강의나 설교나 책을 통해 봉사하면서도 회심의 변화나 성화의 변화를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죽은 정통’이 참 많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

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다 성경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은 결과이다. 성경을 머리로만 대하고 입으로만 전하고 가슴과 손발을 묶어 놓고 설교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의 생명 숨결이 들어간 책이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의 생명 숨결이 묵상자 자신의 가슴에서 약동하는 것을 체험한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 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렘 23:29) 성경을 묵상할 때 묵상자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른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성령의 불로 변한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다. 성경과 관련해서 체험하는 성령의 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모르거나 등한시한다는 것이 성경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깊이 숨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붙는 성령의 불은 성경 구절에 대한 확신의 불이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의 불이다. 성령의 불은 나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의 불이다. 성령의 불은 청중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이다. 성령의 불을 뿜으면 청중의 가슴에는 책망과 찔림과 도전과 감동과 결단의 불이 붙는다.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성령의 불로 변하는 순간 죄와 문제와 고민의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쇠방망이가 되는 것을 체험한다. 성경을 묵상해서 성경이 성령의 불로 변하면 바위와 같은 고민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덩덤하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한다. 묵상 없는 성경 읽기는 성찰 없는 독서와 같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학자들과 책 이름을 줄줄 외지만 책만 읽었을 뿐이지 읽은 내용을 성찰하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시형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기만 하고 성찰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도 읽기만 하고 일 년에 몇 독 했다고 자랑하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지 않으면 회심과 성화의 변화를 전혀 체험하지 못해 공허해질 수 있다.

묵상은 읽은 성경 말씀을 우선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성경의 내용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롬 15:4)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계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화의 회복, 교훈과 책망과 약속 등이 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가령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교훈을 암송과 묵상을 통해 우선 우리 마음에 적용하면 우리와 우리가 교훈하는 후손들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살아 계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활용할 수 있다(엡 6:17).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가? 혹시 유혹하고 참소하는 사탄 앞에서 성령의 검을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혹시 성령의 검을 너무 활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지는 않는가? 혹시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철저한 자기 점검을 통해 이제부터 성경을 묵상하여 성령의 검을 들고 매순간 활용하겠다고 결단하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 이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4월 13일(목요일)부터 19일(수요일)까지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며 현재 사역중인 7개국 12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사역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현지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해 선교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14일(금요일)

· 금요집회 : 현지인 사역자 전체를 소개하며, 환영특별찬양, 현지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 15일(토요일)

· 국가별 선교간담회 및 기도회 : 각 국가별 현지사역자와 만남의 시간을 통해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국가별 장소는 추후 안내)

■ 16일(선교주일)

- 선교박람회 : 총현교회가 그동안 사역했던 국가들의 부스를 설치하여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 등을 소개하고, 현지에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특별히 미디어 부스에서는 다음세대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여 총현교회 및 13개 선교지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게더타운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365일 선교가 가능한 온라인 상시선교를 진행합니다. 또한 윈드 오케스트라가 본당 앞마당에서 연주회를 진행합니다.
- 교구 및 부서 사역자 방문 :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구 및 부서에 방문하여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 외국인 의료선교의 날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외선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문인선교부에서 무료진료를 진행합니다.
- 현지인사역자 지원 지명헌금 : 선교대회 기간동안 초청되어 온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 지명헌금을 진행하며 모금된 헌금은 19일 수요일 선교사 환송 예배 중에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 선교주일 특별찬양예배 : 현지인 사역자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교회학교·차세대·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선교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찬양과 위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19일(수요일)

· 사역자 환송예배 : 현지사역자들의 감사인사와 말씀, 선교헌금전달, 찬양과 축복기도로 사역지 현장으로 환송합니다.

총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선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축복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오시는 사역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며, 이번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주일 특별찬양대 모집



일시 : 4월 16일 주일찬양예배

대상 : 선교 기도동역자 등 선교의 열정을 품은 총현의 모든 성도

찬양곡 : Way Maker

문의 : 선교훈련부 조동일 집사(010-7575-6363)

금요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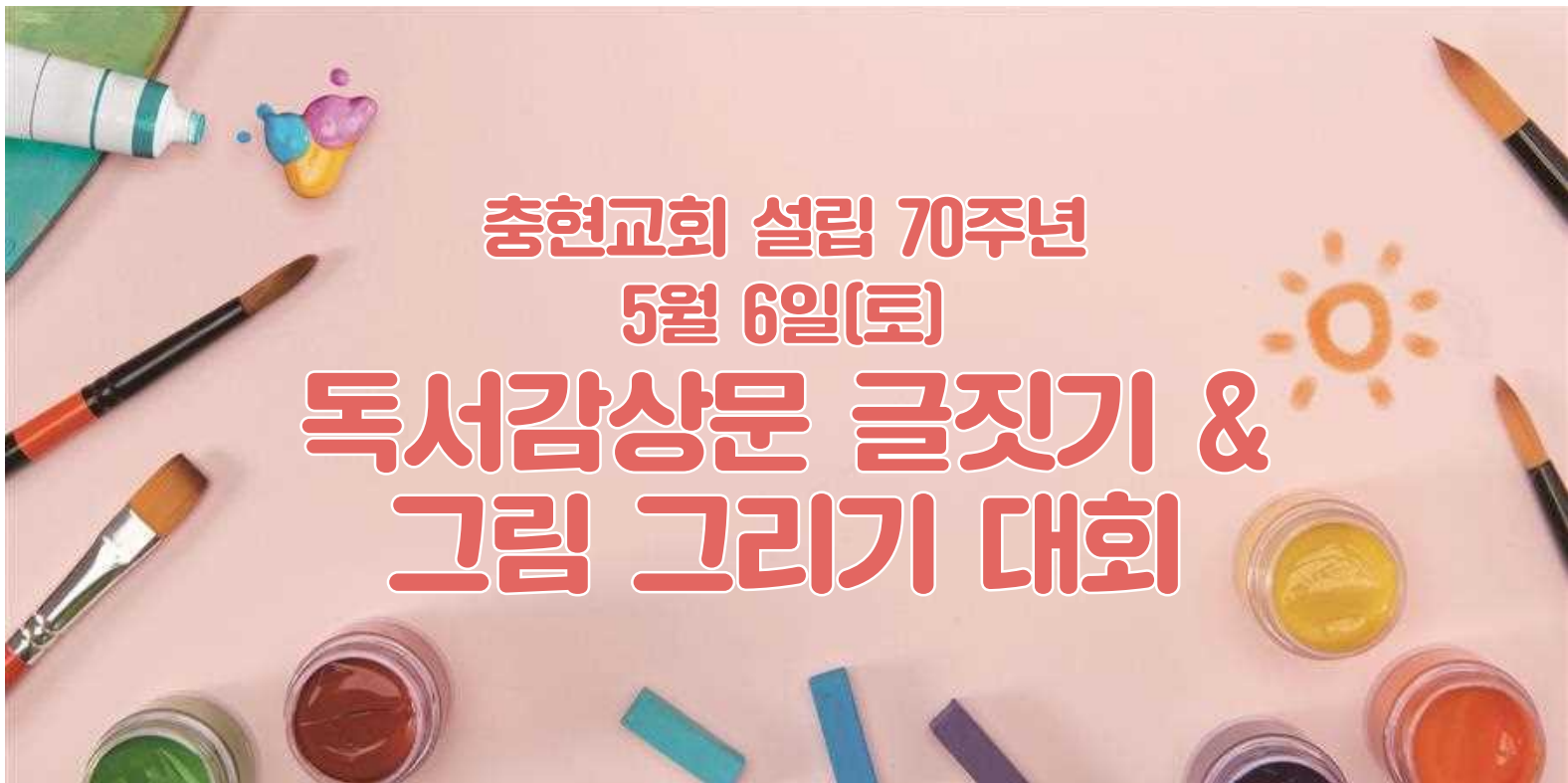
역동적인 금요집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마중물로 불씨가 되어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한: 4월 9일(주일)까지

방법: 총현기도실로 지원서 제출

문의: 김원철 차장 010-9121-5910 예배위원회 중보기도부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5월 6일(토) 독서감상문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1. 독서감상문대회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감상문 분량 : 예꿈도서관 내 신앙서적/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2. 글짓기대회 (시, 산문)

주제 :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품제목 : 신앙생활에 관련 자유롭게 정함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글짓기, 시 분량 :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3. 그림그리기대회

참가대상 :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림 규격 및 양식 : 8절 캔트지 70년 운영위원회 제공

개별준비 : 그림도구, 크레파스, 물감, 붓, 판넬, 돗자리 등

접수기간 : 2023년 4월 9일-4월 30일

접수방법 : 제1교육관 602호 예꿈교사실 (최향숙, 전해숙)

개최일시 : 5월 6일 (토) 10:00-14:00 (예꿈교사실 602호)

장소 : 제1교육관 6층 502호 하늘정원, 본당 앞, 교회 뜰

심사기준 : 신앙관, 표현력, 조화력, 창의성, 노력도

심사결과발표 : 2023년 5월 14일 주간충현

- 참가 어린이에게는 빵과 음료제공 -

시상내역 : 대상 10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30명

문의 : 예꿈 양육부 김동석 집사(010 3209 5131)

초청 뮤지컬 티켓 판매 설명회

대상 : 각 교구 여간사, 차세대 전부서,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다부, 사랑부 담당자 1명

일시 : 4월 9일(오늘) 오후 3시

장소 : 두란노홀(1교육관 102호)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 과거 역사 자료 수집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전시관과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전시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대여해 주시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자료: 1. 충현10년사, 충현20년사, 충현25년사

2. 김창인 목사와 충현교회

3. 월간충현 연도별 합본 혹은 날권

4. 교회수첩 (1975~1989년)

5. 교회요람 (1990~2001년)

수집기간: 4월 23일(주일)까지

자료접수: 70년사 편찬위원회 (선교관3층 303호) 담당: 정인선 권사 010-3800-2240

※ 원본 자료는 스캔 작업 후에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총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총현기도원 주방장 모집

대상 : 세례교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교인은 담임목사추천서 각 1부
문의처 : 총현기도원(031-766-5425)

제 103회 동서울 노회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11일(화) 장 소: 동현교회
성찬식: 한규삼 목사 집례

2023년 각 위원회 및 산하부서 상반기 정기 감사(2022년 7월~12월분)

제출시기: 3월 5일~4월 30일
제출서류: 1)2022년도 조직도, 2)2022년도 사업계획서(월별 예산서 포함),
3)2022년도 시산표(7월~12월), 4)2022년도 현금출납부(7월~12월),
5)2022년도 영수증(7월~12월), 6)2022년도 예산청원 정산서(7월~12월)
제출장소: 감사위원회 701호(동쪽 엘리베이터 사용)

총회 '제 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일 시: 5월 8일 (월) ~ 5월 10일 (수) 장 소: 총현교회당 전체강의4(5/9): 한규삼 목사

의료선교의 날 행사

일 시: 4월 16일(주일) 9:30~14:00 장 소: 제2교육관 3층 및 선교관 의료선교부

4월 정기 당회

일 시: 4월 9일(오늘), 찬양예배 후

4월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시: 4월 19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예배 담당(4/12~4/16)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4/12	수요 I	여호와와 열심을 주목하라 (왕상 18:20-24) 위안복 목사	김주한	김기남
4/14	금요일집회	백년기도, 백년선교 (행 28:30-31) 현지인 사역자	강성은	
4/16 선교주일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복음의 진입을 경험하라 (행 16:6-15)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문진호 윤준식	최민석 김명성 김영주
	주일찬양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8) 스테판 목사	강성은	지규성

교구별 주력새벽기도(4/10~4/16)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0(월)	권혁근/이상배	민 11:1-15	7교구
11(화)	한규삼/김열환	민 11:16-35	전교인
12(수)	권순동/권태선	민 12:1-16	전교인
13(목)	윤성복/김영휘	민 13:1-20	9교구
14(금)	이기영/김여현	민 13:21-33	1교구
15(토)	김상래/김상래	민 14:1-10	전교인
16(주)	박영환/박영환	민 14:11-25	전교인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연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성서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등록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멜런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선교위원회	강성은 11교구 박동진	김주한 1교구 문진호	이성환 12교구 정석훈	권혁근 7교구 김유석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전영재 3교구	박영환 8교구	김유식 예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홍직
박성덕 청년부	권순동	박요셉 청년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화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재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아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남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